■ 지방선거 핫코너

이용섭 "설 이전 금호 대책 마련을"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8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광주·전남은 재계 10위 내 유일한 호남기업인 금호그룹 워크아웃으로 시민들이 느끼는 경기 침체는 매우 심각하다"면서 "설 이전에 협력업체들에 자금 지원이 안 되면 무더기 도산이 불가피한 만큼 3천800억원 조기 지원과 협력업체 지원, 체불임금 지급 등을 위한 긴급운영자금의 지원 등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정찬용 "광주·전남 새로운 통합" 촉구

정찬용 광주시장 예비후보가 8일 광주·전남의 새로운 통합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 예비후보는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가 도를 폐지하고 전국을 50~60개의 광역시·통합시로 개편하려고 하는 것은 전남도가 지도에서 사라지는 것"이라며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왜곡에 맞서고 광주·전남의 정치적, 역사적 지속성을 위해 통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화진 "광주 남구청장 출마"

김화진 '한국 나눔운동' 공동대표는 8일 "문화가 생동하고 인재를 키우는 지역으로 성장시키겠다"며 광주 남구청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김 대표는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특목고를 유치해 남구를 교육 으뜸 자치구로 키우는 한편 낙후된 구도심인 주월동·월산동· 백운동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중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지난 1989년 교육민주화 운동을 하다 해직된 이후 광주 서구의원, 남구의원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광주·전남 장로회 부회장, 민주당 광주시당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강박원 "광산구청장 출마"

강박원 광주시의회 의장은 8일 "광산구를 전통과 첨단이 함께하는 활력 있고 살맛나는 공동체로 만들겠다"고 광산구청장 출마를 선언했다.

강 의장은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0여 년간의 다양한 분야의 공직생활과 광주시의원 재선, 두 차례에 걸쳐 의장을 역임하면서 쌓은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광산구를 글로벌 인재·교육 도시와 첨단과학산업으로 벨트화해 광주의 신 중심도시로 성장·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강 의장은 영암군수와 광산군청 내무·재무·농림과장을 역임했으며, 광주시의회 의장과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부의장을 맡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4人 4色' 세불리기 본격 레이스

■장흥군수 입지자

장흥군을 짊어지고 갈 차기 군수 후보로는 현재 '재선'을 노리는 이명흠 현 군수와 김성 전 도의원, 박형상 변호사, 박형기 민주노동당 지역위원장이 자천타천 거론되고 있다.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지역민 사이에 '설왕설래' 됐던 김인규 전 군수와 김창남 도의원은 최근 확실하게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이명흠 현 군수는 재선거에서 당선된 후 짧은 기간 동안 탁월한 군정수행 능력과 공무원 조직 장악력까지 갖추며 '독주체제'를 이어가고 있다.

이 군수는 김인규 전 군수가 배우자 기부행위로 인한 선거법 위반으로 낙마한 뒤 치러진 지난 2007년 12월 재선거에서 무소속 후보 김성 전 도의원과 민주당 후보 백도선씨를 제치고 당선됐다. 이 군수는 풍부한 행정경험을 토대로 지난 2년여 재임기간 동안 '정남진 장흥'의 역사를 새롭게 쓴다는 각오로 뛰었다고 자평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방재정 조기집행 최우수기관 선정 ▲2009년 국가청렴도 외부 부문 전국 군단위 지자체 1위 등의 수상 등 역동적이고 활기찬 변화와 발전을 거듭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장흥군수 입지자 〈가나다 순〉

김 성(51)	박형기(54)	박형상(52)	이명흠(61)
민주당	민주노동당	무소속	민주당
전 전남도의원	민노당 지역위원장	변호사	장흥군수

이명흠 재선 다짐에 김성 세번째 군수 도전
박형상 출마땐 다크호스로…민노당도 출사표

그는 "이제 가시화되고 있는 정남진 로하스타운, 해당 산업단지, 한방 웰빙 테라피 타운이 4년 후면 확실한 성과가 있을 것"이라며 "재선을 통해 장흥을 중남부권 녹색생명산업의 중심지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며 강한 자신감을 내보였다.

2차례 군수 선거에 도전해 쓰라린 패배를 경험했던 김성 전 도의원이 다시 한번 군수직 도전에 나선다. 특히 지난 2007년 장흥군수 재선거에서 이명흠 군수에게 800여 표 차이로 안타깝게 패한 기억을 떠올리며 '절치부심'하고 있다.

재선의 도의원 출신이기도 한 그는 "그동안 선거에서 변화를 바라는 장흥 군민들의 근성이 이번 선거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번만큼은 공정한 경선과정을 통해 반드시 3번의 실패는 없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고 자신했다.

박형상 변호사도 아직까지 출마의사를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다크호스' 후보로 분류되고 있다. 지난해 연말부터 재경 향우회의 강력한 출마 권유를 받고 있어 민주당에 입당한 뒤 중앙당의 전략공천을 기대하며 출마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변호사는 현재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서울 중구청장에 뜻을 두고 나름대로 기반을 다지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재경 향우 선·후배들이 고향을 위해 헌신해 달라는 주문을 못 이겨 이달 말쯤 최종적으로 출마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공무원 노조 전남지부장 출신인 박형기 민주노동당 장흥위원장은 최근 중앙당의 강한 권유에 못 이겨 출사표를 던졌다.

장흥군청 노조위원장과 전남 위원장직을 지낸 박 위원장은 "일선 공무원들의 열악한 환경과 농어업인, 노약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처우개선 해결의 적임자"라며 "장흥군민을 모두가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고장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자신의 지지층으로 분류되는 공무원과 밑바닥 민심을 훑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중부취재본부=김용기기자 kykim@

①김인규 前 군수 영향력은
②응집력 강한 '씨족' 선택은

■쟁점&변수

장흥군수 선거는 작년 연말 이 군수의 가장 강력한 대항마로 거론되던 김인규 전 군수와 김창남 전남도의원이 잇따라 불출마를 선언한데다 일부 후보들이 선뜻 나서지 않으면서 이 군수의 '독주'가 예상됐었다.

이 군수의 '무 투표' 당선이라는 말도 나돌 정도였다.

하지만, 선거를 100여 일 앞두고 입지자들이 하나 둘씩 모습을 드러내면서 이 군수의 강력한 도전자가 누구일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또한, 불출마를 선언한 김 전 군수의 입김도 이번 선거에서 만만치 않은 영향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 92년 총선부터 다져놓은 두터운 지지층이 아직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따라서 본격적인 경선이 시작되면 김 전 군수의 지지층이 어떤 후보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느냐가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이 군수는 다른 후보군에 비해 '우위'를 선점하고 있다.

지난 2007년 재선거에서 김 전 군수 지지층의 도움을 받아 당선됐고, 지난 2년간 이러한 조직을 꾸준히 관리해 왔다.

한편, 장흥지역은 어느 지역과는 달리 씨족에 대한 응집력이 강한 지역이어서 씨족의 움직임도 변수다.

지금까지 치러진 군수, 도의원, 군의원 심지어 농·수·축협장 선거에 이르기까지 씨족에 의해 당락이 대부분 결정됐기 때문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중부취재본부=김용기기자 kykim@

정치신인 vs 현역 '신·구 대결'
2선거구 민노당 수성 여부 관심

■도의원 입지자

장흥군 도의원 선거는 신·구 대결이 벌어질 전망이다. 현역 의원에 맞서 정치 신인들이 잇따라 도전장을 내놓고 있다.

제1선거구(장흥읍, 장동·장평·유치·부산면)에서는 '4선'에 도전하는 김창남 도의원에 맞서 박준영 전남도지사 비서관 이충식씨와 최경석 군 의원, 고흥천 정남진 농협조합장 등 4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50대와 40대의 젊은 신인들이 도의원 자리를 놓고 한판 승부를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3선인 김 의원은 기독교 장로 출신으로, 지난 1998년부터 지금까지 120차례 헌혈을 해오고 있는 헌혈 운동가로 잘 알려져 있다. 지난 2006년 8월에는 '만성신부전증' 환자에게 자기 신장을 기증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헌신적인 봉사정신을 내세우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용산면 출신인 이충식 비서관은 김재종 전 장흥군수 비서실장 7년, 박준영 전남도지사 비서관 6년 등 자치·광역단체장 비서직을 수행하며 쌓은 행정마인드와 인맥을 내세우고 전남도와의 가교 역할을 통해 예산 및 기업유치에 공을 들일 수 있는 적임자로 자평하고 있다. 그는 이달 중 공무원직을 사퇴하고 민주당에 가입해 경선 경쟁에 뛰어들 예정이다. 그는 "농가 소득 증대, 교육여건 개선, 취약계층 보호 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지지층 확산에 나서고 있다.

■장흥 도의원 입지자

선거구	이름	경력
1	고흥천(민·58)	정남진농협조합장
	김창남(민·57)	전남도의원
	이충식(무·45)	박준영 전남도지사 비서관
	최경석(무·49)	장흥군의원
2	김기주(민·61)	전 농어촌공사 노조위원장
	김광준(민·57)	전 장흥군의원
	이승희(무·57)	천관산 동백숲 보존회장
	정우태(민노·49)	전남도의원

최경석 군의원은 전남 환경운동연합 상임의장을 지내는 등 환경운동가로 잘 알려져 있다. 그는 광역행정협의체를 구성해 지자체 간 ▲관광문화산업 공유 ▲행정 효율 상승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 등에 역점을 두겠다는 포부로 도의원에 도전한다.

2선거구(관산·대덕·용산·안양·회진)에는 지난해 5월에 보궐선거에서 혜성같이 등장해 도 의원직을 거머쥔 민주노동당 소속 정우태 의원과 김광준 민주당 도당 교육연수위원장, 김기주 전 농어촌공사 노조위원장, 이승희 천관산동백숲 보존회장 등 4명이 '도의원' 자리를 놓고 승부를 벌일 예정이다.

정 의원은 장흥지역에서 '제2의 강기갑' 으로 불릴 정도로 농어민들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얻으며, 쌀값 현실화 문제 등 농어민을 위한 대책에 몰두하는 등 농민 표심을 끌어 모으고 있다. 김광준 위원장은 제4대 군의원 역임한 경력으로 상대적으로 낙후된 장흥발전에 초석이 되겠다는 의지로 도전하고 있다.

김기주 전 노조위원장은 30여년 농어촌공사에 근무하는 경력을 내세우며 농어촌문제의 해결방안에 누구 보다도 자신감이 있다며 농어민들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산림애호가인 이승희 회장은 그동안의 노력으로 천관산 동백숲이 지난 2007년에 한국 최고 기록인정을 받은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도의원이 되면 동백 박람회 개최를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중부취재본부=김용기기자 kykim@